

### 사무엘상 5.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과 엘리 제사장의 죽음 (삼상 4 장 1b.-22 절)

#### 들어가기

사무엘상 4 장은 전장에서 예언된 엘리 집안의 멸망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줍니다. 특별히 이 무렵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이 발생되어 1 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 차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전투의 패배 원인을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대 안에 없었던 것이라 판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일종의 우상의 한 형태로 이해하고 사용하려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전쟁도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기는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 1.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 (1-11 절)

##### 1)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각각 ‘\_\_\_\_\_’과 ‘\_\_\_\_\_’에 진을 치고 싸웠습니다. (1-2 절)

- 이스라엘 = ‘에벤에셀’ -> 여호와께서 도우셨음을 기념하기 위한 장소, 그 뜻은 ‘도움의 들’!
- 블레셋 = ‘아벡’ -> ‘요새’ 라는 뜻.
- 그런데!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4000 명의 전사자를 내며 패하였습니다. (2 절)

##### ➤ 주목 1. 특별히 이스라엘 군대가 에벤에셀에 모였을 때는 무엇을 바라고 모였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 그러나 전쟁에 대패!

☆ 곧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기대와 소망은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발견!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먼저 자신들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음을 깨달아야만 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곧 당시 제사장으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맘대로 행동하며, 범죄하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고 바랬다는 것은 분명한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를 기대하고 바랬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회개하고 돌이켜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만 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만약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란 기대는 분명히 착각이란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 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음을 가르치고 있음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 2) 그러나 이스라엘 장로들은 전쟁의 패배 원인을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3-4 절)

- 이스라엘 장로들은 패전의 원인이 결코 자신들의 죄와 잘못에서 출발되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지도자들이 영적인 소경이 되어 더 이상 자신들의 행위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남의 잘못을 보고 판단하기 보다는 우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 바로 볼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주목 2. 특별히 3 절 장로들의 말을 주목해 봅시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와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그것으로...’

여기서 우리는 저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나타낸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 저들은 그저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법궤를 이동시켜 당시 주변국들이 자신들의 신을 상징하는 우상을 들고 전쟁에 나선 것처럼, 법궤를 이용해 하나님도 함께 움직이겠다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샤머니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운 자신들 스스로를 바로 파악할 줄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 어처구니 없는 신앙상태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 실로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는 엘리의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4 절)

☆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당시 엘리의 아들들은 얼마나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내세우며, 거들먹거리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척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했을까요?

**3)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하늘을 찌렀고, 블레셋은 그 소리를 들으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5-8 절)**

■ 언약궤가 진에 들어오자 백성들은 함성을 외쳤고, 그로 인해 땅이 울렸습니다. (5 절)

여기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무나도 단순한 샤머니즘적인 신앙상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곧 저들은 그저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셔서 당장 처했던 곤경에서 그들을 건져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저들의 함성 소리에서 당시 저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찾기 보다는 그저 자신들에게 복과 은혜, 능력만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만을 바라며 필요로 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저들과 어떻게 다를까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장래에 얻을 영광을 위해 오늘의 고난도 즐거워하며 받는 이들이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 장 29-30 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 이스라엘 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6-8 절)

-> 이는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했기 때문!  
 ‘이스라엘의 하나님’ =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신 신’

- 그러나 이것은 도리어 블레셋 사람들을 더욱 더 하나로 뭉치게 하고 강하게 하는 역효과로 작용되었습니다. (9 절)

➤ **주목 3. 블레셋 지도자들의 반응 (9 절)**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 ◆ ‘히브리 사람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 무슨 의미일까?

- ◆ 그러므로,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 곧,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라!

참고: 어떤 신학자의 코멘트..

‘블레셋 사람들이 싸운 것은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훌륭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죽기 살기로 싸운 것!.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대하고 이상적인 종교적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즉시 일어날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싸우며 산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4)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10-11 절)**

- 이스라엘 군대는 3 만명이 전사함
-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김
-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함

2. 엘리 제사장의 죽음 (12-18 절)

1) 한 베냐민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쓴 채 전쟁의 패배 소식을 알렸습니다. (12-13 절)

■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는 행위 = 죽은 사람이나 국가적 재난을 애도하는 행위

2) 엘리 제사장은 길가 의자에 앉아 하나님의 궤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13 절)

->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즘음이라**’ = ‘두려워하며 걱정했다’는 뜻!

-> Why ?

3) 전쟁의 패배와 아들의 죽음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지는 처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 그럼! 생각해 봅시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쓰임 받았던 엘리의 처참한 죽음을 목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3.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 모든 소식을 듣고 갑작스런 해산의 고통으로 아들을 낳고 죽었습니다. (19-22 절)

■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이라 하였습니다.

■ ‘가봇’이란 말은 ‘영광’이란 뜻이고, ‘이’ 는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어로, 이를 합치면,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라는 뜻입니다.

■ 이것은 곧 그녀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들의 이름을 통해 그 슬픔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오늘 내용 중에 새로 깨달은 것이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